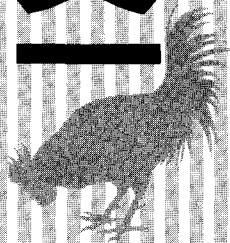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유럽연합(EU)

가금산업 성장 추이

유럽연합(EU)의 지난해 가금생산량은 920만톤으로 지난 1991년 보다 32%나 증가되었으며, 1인당 소비량도 18.73kg에서 23.73kg으로 2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의 수출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PI)

표. EU의 가금산업 추이

연도	구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자급률 (%)	소비량 (kg/인)
1994		7,591	683	207	106.8	10.4
1995		8,042	862	248	107.9	20.0
1996		8,358	791	285	106.6	21.0
1997		8,636	913	274	108.4	21.3
1998		8,823	999	317	109.0	21.6
1999		8,778	997	381	107.0	21.8
2000		8,798	1,010	545	105.1	22.2
2001		9,127	967	789	102.0	23.7
2002		9,204	986	782	102.3	23.7

(자료:EC)

러시아

가금육 시장의 새로운 기류

러시아는 지난 1998년도 경제위기 이후 가금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내 소비의 9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경기가 점점 회복되고 미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2000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7%대로 낮아졌다. 반면 나머지 물량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 유럽지역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도 수준으로 양계산업이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2002년에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철강에 대한 덤핑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가금육의 위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새로운 가금수역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힘을 기울여 다시 수입을 재개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폭으로 줄고 대신 브라질의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등 수입선이 다양해지고 있다.(鶏の研究)

## 일본

### 전국 부화업자수 158농가

일본이 지난해 2월1일 현재 조사한 전국 부화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농가 감소한 158농가로 나타났다. 이중 산란계는 51농가, 육계는 82농가, 난육겸용종은 25농가로 각각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양계산업 부흥기인 1971년도에 917개 농가에 비해 큰 폭 감소된 수치이다. 한편 종계업자수는 4%감소한 634농가, 종계사육수수는 34% 감소한 11,048,993수로 나타났다.(鷄鳴新聞)

## 이스라엘

### 깃털 없는 닭에 대한 새로운 보고

지난해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던 깃털없는 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인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졌던 깃털없는 닭은 붉은 색의 나체형 닭으로 일반 닭들보다 건강하고 빨리자라며, 깃털을 뽑을 필요가 없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GMC사(도계장)의 기술위원을 맡고 있는 켈리 박사는 양계산업에 접목될만한 뚜렷한 내용은 아직 소개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닭에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환기시설로 투자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털이 없기 때문에 몸에 상처를 입을 확률이 커 도계장에서 상품화를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PI)

## 영국

### 계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영국은 최근 한 설문전문업체인 NOP에서 계란에 대해 조사한 설문 내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박스안의 7개의 계란에 요일이 새겨 유통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설문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1주일에 3개 이상의 계란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42%의 소비자와 간호사, 영양사, 건강관리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중의 1/3은 계란이 변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의 계란협회는 요일이 새겨진 계란을 출시하는가 하면 하루 한알 이상의 계란을 먹어도 무관하다는 미국건강협회의 말을 인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WP)

## 캐나다

### 산란계 케이지 공간 늘려야

캐나다에서 산란계 케이지에 대한 닭 한마리의 공간을 432cm<sup>2</sup>로 늘려 줄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이유는 닭 환우시 사료와 물을 제안하는 측면과, 레이저 방식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부리자르기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법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I)